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가)

외할머니 마당에 올라온 **해일(海溢)**엔요.
예원 살 나이에 스물한 살 얼굴을 한
그리고 천 살에도 이젠 안 죽기로 한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

생솔가지 울타리, 옥수수밭 사이를
올라오는 해일 속 신랑을 마중 나와
하늘 안 천 길 깊이 묻었던 뉘 파내서
새각시 때 연지를 바르고, 할머니는

다시 또 파, 무더기 웃는 청사초롱에
불 밝혀선 노래하는 나무나무 잎잎에
주절히 주절히 매어달고, 할머니는

갑술년이라던가 바다에 나갔다가
해일에 넘쳐오는 할아버지 혼신(魂身) 앞
열아홉 살 첫사랑쩍 얼굴을 하시고
-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

(나)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
더는 알 수 없는 빛도 스며서는
손 닿지 않은 데가 걸리듯
담장 바깥까지도 흰하다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뜬어진 채 쏟아졌었다
그 하늘을 어찌지 못하고 지금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같고 또
그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같은 것
들려서 내려온

신(神)과 신(神)의 얼굴만 같고
어스름녘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만 같고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영글어 올 때 우리는
늦은 밤에라도 한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보자
그런 어느 날은 한 끼니쯤은 굶이라도 보자)

그리고 또한, 멀리서 어머니가 오시듯 살구꽃은 피었다

흰빛에 분홍 얼룩 혹은

어머니에,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친 굵은 실밥, 자국들
- 장석남, 「살구꽃」 -

(다)

‘내 마음은 호수’로 대표되는 은유는 흔히 ‘마음=호수’라는 등식과 함께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1:1로 대응되는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호수’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음’과 ‘호수’가 상호 작용하면서 사랑의 심리 상태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행인 ‘그대 노 저어 오오’도 실체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읽히게 된다. 이는 은유가 단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은유의 본질이 이질적인 층위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생산과 창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가)를 보면, ‘해일’이 일어난 것은 실제이지만 ‘신랑이 돌아오는 풀밭길이 있어요.’의 진술을 통해 ‘해일’과 ‘풀밭길’은 상호 작용하며 작품 전반에 걸쳐 각각 그 이상의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랑’이 돌아오는 허구적 상황을 시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심정이 드러나며,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마당’은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재생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는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여기에는 순환성과 영원성을 추구하는 시인의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해 간다.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향한 간구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神)’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기교의 차원을 넘어 층위가 다른 대상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주제에 관여하고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세계 인식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본질을 제대로 읽어 낼 때 우리는 시가 주는 깊은 울림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 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시 43-45번

44. [A]를 바탕으로 (가)의 **해일**과 (나)의 **살구꽃**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일’은 ‘풀밭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할머니’가 ‘신랑’을 ‘마중’ 나가는 허구적 상황이 시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② ‘해일’로 인해 ‘바다’가 죽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으로 전이 되는 것으로 보아, ‘해일’에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살구꽃’은 ‘하늘’을 ‘여러 번씩 쳐다보던’ 시선에서 비롯되는 상층의 심상과 ‘내려온’에서 비롯되는 하강의 심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해일’은 ‘청사초롱’에 ‘불 밝’히는 ‘할머니’의 행위를, ‘살구꽃’은 ‘늦은 밤에라도’ ‘불을 켜’는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내어,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⑤ ‘해일’은 ‘마당’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구꽃’은 ‘마당’과 ‘하늘’의 사이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세계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군.

45. (다)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굵은 실밥, 자국들’은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 의식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뜯어진’, ‘케매는가’, ‘케매 감친’과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흰 돛배처럼 떠 있는’, ‘제 얼굴로 넘쳐 버린 눈빛’으로 나타낸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9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

(가)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대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顛倒)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

(나)

무르익은
과실의 밀도(密度)와 같이
밤의 내부는 달도록 고요하다.

잠든 내 어린것들의 숨소리는
작은 벌레와 같이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

별들은 나와
자연(自然)의 구조에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

한 시대 안에는 밤과 같이 해체(解體)나 분석(分析)에는
차라리 무디고 어두운 시인들이 산다.
그리하여 토의의 시간이 끝나는 곳에서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

꽃들은 떨어져 열매 속에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

그리하여 시간으로 하여금
새벽을 향하여
이 풍성한 밤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할 줄을 안다.

-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얻은 심리적 인상 체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현대시 29~31번

계나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시에서의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시적 상황을 암시하여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 이미지란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인 것이다.

한편 이미지의 기능으로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등을 들기도 한다. 신선감이란 어휘나 소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빚어내는 새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낮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강렬성이란 작품 속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고,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을 뜻한다.

2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0.(다)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분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의 '별들이 '질서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31. ㉠과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작가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한편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며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과실로서의 '밤'의 속성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으로서의 '밤'과 중첩된다.

-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 ②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언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울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확새*** 울음 되어 우항산 술밭을 다 적시고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³⁾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현대시 27~31번

-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 [B]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D]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과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 [E]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깊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홀리고 간 형겼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친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 진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운천행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 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4) 2018년 7월 고3 학력평가 국어 29-32번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뽀뽀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들
 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끊어지고, 숫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잇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
 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
 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
 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
 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
 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
 적 장소감을 ‘장소에’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
 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
 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
 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
 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

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A]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도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는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축고 힘겨웠던 기억을 모두 없앴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괜하디'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늪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이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

(가)

생평(生平)에 원(元)하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惶惶)* 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흐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흐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흐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 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라
뉘러서 회보미방(懷寶迷邦)* 하니 오라 말라 흐노라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5)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6~20번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 책을 읽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 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떡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허’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가)

너는 서해 뺨을 적시는 노을 속에
서 본 적이 있는가
망망 뺨 발 속을 헤집고 **바지락을 캐는** 여인들
한쪽 귀로는 내소사의 범종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선운사의 쇠북 소리를 듣는다
만권의 책을 쌓아 올렸다는 채석강 절벽
과도는 다시 그 만권의 책을 풀어 흘러
뺨 발 위에 책장을 한 장씩 넘긴다
이곳에서 **황혼**이야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시간
가슴 뜨거운 불꽃을 사방으로 던져
내소사 대웅보전의 **낙살문 연꽃 몇 송이도**
활짝 만개한다
회나무 가지를 치고 오르는 청동 까지 한 마리로
만다라*와 같은 불립 문자로 탄다
곰소의 뺨 강을 건너 **소금을 저 나르다** 머슴 등허리가 되었다는
저 소요산 절마재도 마지막 술 빛으로 익는다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
해는 수평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 송수권, 「대역사(大役事)」 -

* 만다라: 우주 법계의 온갖 덕을 망라한 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

(나)

젓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를 보면, 그 **가지들**이 가는
것이나 굵은 것이나 아예 실가지거나 우듬지*거나,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회확 후리거나,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기둥 같은 **둥치**에서 뻗어 나간 게 새삼 신기한 일.

더더욱 그 실가지 하나에 얹은 조막만한 **새**의 무게가 등
치를 타고 내려가, 칠혹 **땅속**의 그중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흙
살에까지 미쳐, 그 무게를 견딜힘을 다시 우듬지에까지 올려
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댕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 주는가.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

-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대상을 현장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으로 대상을 불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6)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43-45번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은 작품의 주요한 제재로 사용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는 황혼의 조명을 받으며 서로 화답하고 위로를 건네는 천지 만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무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생명력을 드러내고,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뺨’을 매개로 ‘바지락을 캐는’ 것과 ‘소금을 저 나르’는 것을 연결한 것은 ‘대역사’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② (가)에서 ‘황혼’이 ‘사방으로 던진 ‘가슴 뜨거운 불꽃’에 ‘낙살문 연꽃 몇 송이’가 ‘활짝 만개’하는 것은 만물이 서로 화답하고 교감함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에서 ‘쉬어라 쉬어라 잠시 잠깐’은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 애쓴 모두에게 자연이 위로를 건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젓은 바람 속’에서도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 겨울 나뭇가지의 모습은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에서 ‘아, 우린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느니.’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음을 드러내고 있군.

4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지들’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저마다 차지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둥치’는 감나무의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춧기둥’의 역할을 하는군.
- ③ ‘새’는 ‘실가지 하나에 얹’아 나뭇가지가 ‘그 무게를 견딜힘’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나게 해 주고 있군.
- ④ ‘땅속’이 지닌 ‘칠혹’ 같은 어둠의 이미지는 ‘산 가지’의 ‘어떤 댕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과 대비되고 있군.
- ⑤ ‘땅심’이 베풀어 주는 ‘배려’는 ‘실뿌리’를 통해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내도록 하는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답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43번 - 45번

	43	⑤	44	④	45	⑤	
--	----	---	----	---	----	---	--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29번 - 31번

	29	④	30	⑤	31	②	
--	----	---	----	---	----	---	--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27번 - 31번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	---	----	---	----	---	----	---	----	---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29번 - 32번

29	①	30	②	31	③	32	④	
----	---	----	---	----	---	----	---	--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6번 - 20번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	---	----	---	----	---	----	---	----	---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43번 - 45번

	43	②	44	④	45	④	
--	----	---	----	---	----	---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 기출 작품 목록

<2018년 3월 학력평가>

서정주, '외할머니네 마당에 올라온 해일'
장석남, '살구꽃'

<2018년 4월 학력평가>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김현승,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박봉우, '휴전선'
배한봉, '우포늪 왓새'
김기림, '주을은천행' (수필)

<2018년 7월 학력평가>

백석, '두보나 이백같이'
문태준, '가재미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내다'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시가복합)>

권호문, '한거십팔곡' (고전시가)
박재삼, '추억에서'

<2018년 10월 학력평가>

송수권, '대역사'
고재중,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